

2026학년도 동덕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사회 II]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 시험시간은 90분이며, 각 문제의 소문항별로 기재된 글자 수를 준수하여 답안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에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검정색 볼펜**으로 정확히 기재하시고 해당란에 정확히 마킹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연필을 포함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 수정이 필요할 시 두 줄을 긋고 정정하거나 지우개, 수정테이프 등을 활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에는 제목을 쓰지 마시고,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답안에는 자신의 신상에 관련한 내용을 드러내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 **숫자는 한 칸에 두 자씩** 기입하기 바랍니다.

※ 예: '100 원이다.' 를 기입하는 경우 아래의 두 가지 모두 가능함

10	0	원	이	다	.	백	원	이	다	.
----	---	---	---	---	---	---	---	---	---	---



동덕여자대학교
 DONGDUK WOMEN'S UNIVERSITY

[문제 1]

- (1) (가)와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다)의 A 회사의 손익분기점 판매량 개수, 손익분기점에서의 수익과 비용 금액을 각각 계산 과정과 함께 제시하시오. (350±50자, 45점)
- (2) (가)~(다)를 바탕으로 (라)의 <보고 사항>의 오류를 설명하고, [그림] '손익분기점 도표'에서 A~D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금액이나 수량과 함께 쓰고, 판매량(5개, 20개, 30개)별 손익 금액을 서술하시오. (450±50자, 75점)

※ 답안 작성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고 정수로 답하시오.

(가) 판매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이익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용(원가)을 변동비(변동원가)와 고정비(고정원가)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고정비는 생산량(또는 판매량)의 변화와 상관없이 총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비용으로, 기계 설비 대여비, 공장 임차료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제과점이 빵을 만들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공장을 1년간 빌렸다면, 빵 생산량이 늘거나 줄어도 임차료 총액은 항상 일정하다. 단위당 고정비는 고정비 총액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고정비 총액은 일정하지만,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 변동비는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 비용 총액이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제품의 재료비를 들 수 있다. 가령 제과점에서 빵 생산량을 늘리면 그만큼 밀가루 구입비도 증가하므로, 밀가루 구입비 총액은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한다. 단위당 밀가루 구입비는 생산량의 증감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나) 기업은 제품이 어떤 가격에서 어느 정도 판매될 것인지를 예상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그런데 기업이 예상한 만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상보다 적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손해)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들이 제품을 최소한 어느 정도 판매해야 손실을 피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이다. 손익분기점은 기업의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여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판매량 또는 매출액을 의미한다. 손익분기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과 비용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기업의 수익은 제품의 판매가격과 판매량의 곱이고,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한 금액이다. 이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기업의 이익이 된다. 그러므로 손익분기점은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의 판매량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판매량을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라 한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text{손익분기점 판매량} = \frac{\text{고정비}}{\text{판매가격} - \text{단위당 변동비}}$$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고정비는 20,000 원, 단위당 변동비는 100 원, 제품의 판매가격은 500 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제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50단위(개)이다. 즉 기업이 이 제품을 50개를 판매했을 때 수익과 비용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50단위(개) 판매 시 수익 = 50단위 × 500 원	= 25,000 원
50단위(개) 판매 시 비용 = 20,000 원 + 50단위 × 100 원	= 25,000 원

그러므로 이 제품을 50개보다 많이 판매한다면 기업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50개보다 적게 판매한다면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의 손익분기점 분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비용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비용이 달라진다면 손익분기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판매량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 예상과 달리 실제 판매량이 손익분기점 판매량보다 적다면 기업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기업은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서 제품의 판매 성과에 대한 평가, 적절한 생산 방법의 결정 등 각종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다) A 회사는 나무로 만든 가구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제조를 위해 1년 단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공장과 설비를 연간 2,000 원에 임차하고 있다. 회사의 연간 최대 생산능력은 30개이지만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2026년에 20개를 생산하여 개당 판매가격 300 원에 모두 판매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회계팀에서는 비용을 <표>와 같이 요약하였다.

<표> 20개를 생산하여 모두 판매할 경우의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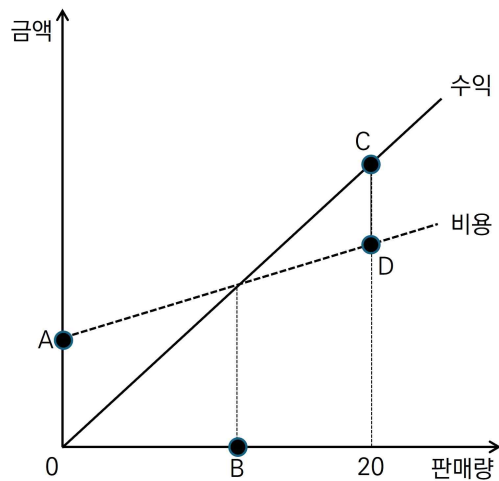
항목	원가행태 분류	금액	20개 생산 시 비용
재료 구입비	변동비	단위당 20 원	400 원
노무비(인건비)	변동비	단위당 30 원	600 원
기타 변동비	변동비	단위당 50 원	1,000 원
공장 및 설비 임차료	고정비	연간 2,000 원	2,000 원
합계			4,000 원

(라) 회계팀으로부터 <표>의 자료를 확인한 영업팀의 신입사원은 사장님께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보고 사항>

20개를 생산할 경우의 총 비용은 4,000 원이므로, 단위당 비용은 200 원입니다. 우리 회사 제품의 판매가격은 300 원이고, 단위당 비용은 200 원이므로 1개 판매할 때마다 100 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기가 좋지 않아 5개만 판매할 경우에도 500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목표인 20개를 판매할 경우 총 2,000 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수요 증가로 최대 생산 능력인 30개를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총 3,000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림] 손익분기점 도표



[문제 2]

(가)~(마)를 (바)의 '결과의 공정성'과 '과정의 공정성' 중 어느 관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분류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또한 (바)의 재난 상황에서 공정한 과정과 공정한 결과를 모두 고려한 조치를 (바)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600±50자, 80점)

(가) 인권과 복지가 밀접하고 상호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 중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들을 위해 국가가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자산조사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수급권자는 자신이 얼마나 이 제도에 부합한 가난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절차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신청부터 수급자 선정까지의 제도 시행 과정은 반(反)인권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난을 입증하고 확인하는 절차 때문에 사생활에 대한 권리, 자유권, 명예권 등의 인권이 침해되기도 한다.

복지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자산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적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는 지원 필요성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수급 신청자에게 굴욕감과 불신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 * 수급권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 * 자산조사 :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수급자 선정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절차

(나) 우리 사회에서 소수인종, 장애인 등 특정 인구 집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낮으며, 같은 일을 해도 낮은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남성이 여성보다 육체적 힘이 더 강하고 그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능력의 차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차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업적으로만 자원을 배분하면 특정 인구집단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진정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경쟁에서 취약한 집단들에게 주어진 불공정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이를 긍정적 차별,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하며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진정한 평등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사회적 약자 집단들에게 대학입학, 진급,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 유리하게 대우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에 대한 의무 배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무릇 토지는 세상의 커다란 근본이다. 『춘추』의 의리(義理)에 따르면, 제후는 임금이 내린 토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대부(大夫)라 할지라도 토지를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다. 이제 힘센 백성들이 논밭을 점유한 것이 혹은 수백 수천 경(頃)에 이르러, 그 부유함이 임금과 제후를 넘어섰으며, 이는 스스로 토지를 제멋대로 소유하는 것이다. …(중략)… 정전법을 완벽하게 시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마땅히 식구 수에 비례하여 토지를 소유하게 하고, 토지 소유의 한계를 정하여 함부로 토지를 매매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토지의 독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니, 이처럼 토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 * 경(頃) : 중국의 거리 단위. 1경은 60리(약 24km)이다.
- * 정전법 : 고대 중국의 토지 제도. 밭을 '정(井)'자 모양으로 나누어 9등분한 다음에 세금을 내기 위해 중앙의 한 구역을 공동 경작한다.

(라)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순수 절차적 정의와 원초적 입장의 관념을 사용합니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는 대신, 공정한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결과도 공정하게 된다고 봅니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은 거기에서 합의된 어떠한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화하기 위해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마) 장기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장기를 분배하는 일은 ‘분배의 정의’ 문제를 제기한다. 장기이식은 이식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키면서 시행되어야 한다.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 이식의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 신청한 사람, 즉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일까? 의학적 고려(위급성, 조직적합성, 성공 전망 등)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고려 사항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환자의 연령(기대 수명에 대한 고려), 가족 상황(부양가족이 많은 부모의 경우), 신분이나 직업, 능력이나 업적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반론이 적지 않다. 기대되는 생존기간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노인이나 짧은 생존기간이 예상되는 환자들은 장기를 이식받을 동일한 권리를 지니지 못한다는 말인가? 어린 자식들을 돌보아야 하는 부모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환자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치료 순위를 정하는 것은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 어떤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그의 재력이나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차라리 추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공정한 추천을 통해 우연적 선택의 원칙에 따라 분배를 결정한다면, 사람들은 그 결과에 승복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하지만 매우 연로한 사람이 젊은이에 앞서 선택된다든가, 가족이 없는 사람이 어린 자식들이 딸린 부모에 앞서 선택된다면 사람들은 이를 유감스럽게 여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연에 의해 환자의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승고한 장기기증에 그에 걸맞은 진지함이나 감사함 없이 무성의하게 처리된다는 느낌 때문에 장기기증을 원하는 사람이 줄어들지도 모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추천방식은 여전히 우리가 마지막으로 수용할 수 있는 원칙이자 올바른 대안으로서, 이식 당사자인 의료진이나 환자들에게 가장 적은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을 지닌다. 왜냐하면 이는 동등한 권리를 지닌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정신에 가장 근접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바) 한 마을에 폭풍이 몰아닥친다. 전기가 끊기고 물 공급이 중단된다. 마을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서는 생수를 평소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이 슈퍼마켓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이를 비윤리적이라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볼모로 삼아 가격을 책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평상시와 동일한 가격을 책정한다고 해보자.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실제로 소비할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사재기를 허용하면 정작 필요한 사람이 생수를 구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일 인당 판매량을 제한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전 확보, 운송 등의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을 판매 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면, 분배 과정 자체가 지속 불가능해진다. 또 슈퍼마켓 주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업을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결국 재난 상황에서는 ‘누구나 생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결과의 공정성과 ‘자원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과정의 공정성이 충돌한다. 단순히 가격만 통제하거나 방치하는 것으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